

桓雄天皇의 先天開闢과 實在的 根據

안창범*

목 차

- I. 問題의 提起
- II. 桓雄天皇의 先天開闢과 開天節
- III. 神仙道の 思想
- IV. 神仙道の 實在的 根據
- V. 史學界의 上古史 否定論 克服
- VI. 結 論

I. 問題의 提起

민족사를 회고해 보면, 漢四郡의 설치와 古朝鮮의 萎縮, 高句麗·百濟의 滅亡과 國書庫의 燒失, 元나라 蒙古軍의 고려지배와 蒙古化政策, 近世朝鮮의 朱子學 일변도 정책과 事大慕華教育, 日帝의 植民政策과 皇民化教育, 해방 후 西歐化政策과 脫民族化教育 등 이러한 민족사상 말살정책이 元나라 몽고가 고려를 지배한 이후 지금까지 약 800년 간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민족의식은 황폐화되고 민족주체의식은 사라져 우리 민족에게도 고유사상과 고유철학이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있느냐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곧, 우리 민족은 외래의 道·佛·儒 등 남의 사상에 의해 살아가는 더부살이 인생이 되고 있다. 고유철학도 고유종교도 없는 無主空白狀態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사상이 난립하고, 민족의식은 수십 개로 분열되어 민족성의 타락은 극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태고시대에 이미 弘益人間 理化世界를 통치이념 내지 생활이념으로 했다는 점, 우리의 민족에 三神上帝니·三神帝王이니 하는 三神信仰이 있다는 점, 우리 민족은 소수민족이면서도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다는 점, 단일민족으로 지탱하면서 누구에게도 뒤지기를 싫어하는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다는 점, 일부 민족종교에서는 지금도 桓仁·桓雄·桓儉의 三聖을 신앙의 대상 내지 敎祖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의 극동에 있으면서 五대양 六대주의 중앙에 있다는 점 등은 우리 민족에게 태고시대부터 고유사상과 고유문화 그리고 고유신앙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사상과 계율과 의식 등 종교적 체계가 뚜렷이 밝혀진 바 없고¹⁾, 실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유종교의 실제성을 부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 『桓檀古記』와 『檀奇古史』마저 僞書로 취급되고 있는가 하면, 실증 사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靑銅器 사용은 기원전 10세기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다면서 우리 민족의 上古史와 그 사상인 神仙道를 무조건 부정하려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선도의 유래와 사상을 간략히 밝히고, 실재적 근거를 가급적 자세히 제시함과 아울러 본 연구수용에 장애가 되는 “實證史學界의 上古史 否定論”과 “桓檀古記 僞書論”에 대해 비판한다. 그밖에 經典·戒律·儀式·發生原理와 發生背景 등 신선도의 종교적 구성요건과 신선도의 사상적 성격 그리고 그 특수성 등에 대해서는 論外로 한다.

만약 이상의 문제가 입증되고 학계의 공인을 받게 될 경우, 세계사를 새로 써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민족사와 민족의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意義라 하겠다.

1) 神仙道는 그 經典에 天符經·三一神誥·參佺戒經이 있고, 戒律에 三倫·五倫·五戒·八條·九誓가 있으며, 儀式에 蘇塗祭天儀式과 각종 祭祀儀式이 있다. 그리고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를 발생원리로 하고, 勇德·仁德·智德 등 우리 민족의 삼중적 성격과 寒帶(白人種)·熱帶(黑人種)·溫帶(黃人種) 등 三大人種의 성격을 발생학적 배경으로 한다. 종교적 목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최고 신선의 경지인 成佛을 목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홍익인간 광명이세를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신선도는 종교적 체계를 갖춘 합리적 성립종교이다.

Ⅱ. 桓雄天皇의 先天開闢과 開天節

『周易』 風地觀에 따르면 “하늘의 신비한 이치(道)를 보니 四時의 운행이 어김 없는지라, 이에 성인이 신비한 이치로서 종교를 세우니 천하가 잘 따르더라” 하였고²⁾, 『東文選』에도 “신비한 이치로서 종교를 세우니 태평이 가득하다”고³⁾ 하여 『주역』과 『동문선』이 태고시대부터 天道에 바탕을 둔 종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神道·神教·神仙道·神仙教 등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고,⁴⁾ 檀君神教가 전승되면서 三韓(古朝鮮)에서는 天神教, 부여에서는 代天教, 고구려에서는 敬天教, 신라에서는 崇天教, 발해에서는 眞宗教, 遼와 金에서는 拜天教, 만주에서는 主神教 등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⁵⁾ 이를 보면 태고시대부터 우리 민족 사회에 합리적 성립종교인 고유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최근세의 학자로서 崔南善⁶⁾과 金教獻⁷⁾ 그리고 申采浩⁸⁾도 태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사회에 합리적 성립종교인 고유종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天道敎創建史』를 보면, 천도교의 제2세 교주 崔時亨 선생이 “吾道의 大運은 天皇氏의 근본원리를 回復시킨 無極之運이며, 天皇氏는 先天開闢의 始祖를 의미한다” 하였고⁹⁾, 義菴 孫秉熙 선생도 “우리 대선생(최제우 선생)께서 비로소 無極大道와 大德의 根本原理와 接靈降話의 理致를 밝혔다고 하나, 開闢初의 天皇氏로부터 처음 비롯된 運이라 하니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¹⁰⁾ 다시 말하면, 崔濟愚와 崔時亨 그리고 孫秉熙 선생은 先天시대, 開闢의 始祖인 天皇에 의해 설파된 先天開闢思想이 있었고, 이를 계승한 것이 東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先天이란 後天에 대응하는 말로서 태고시대 開國初를 의미하며, 開闢이란 宗教創設 내지 精神革命을 의미한다. 先天開闢의 始祖는 開國初 宗敎를 창

2) 『周易』 風地觀에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라 하였다. 여기에 서의 設敎는 “종교를 일으키다. 종교를 창설하다. 종교를 세우다”의 뜻이다.

3) 『東文選』 第三十一卷, 敎坊贊八關表에 “神道設敎 大平持盈”이라 하였다.

4) 金得根, 『韓國宗敎史』, 白岩社, 1987, p.40. 이외에도 李能和의 『朝鮮巫俗考』와 『朝鮮道敎史』등 여러 옛책에 “神道·神教·神仙道·神仙敎”니 하는 말이 자주 보인다.

5) 金教獻(李民樹 譯), 『神壇實記』, 한뿌리, 1987, p.51.

6) 『朝鮮常識問答』(三星文化文庫, 1974), VII(信仰), p.147.

7) 金教獻, 『神壇民史』 한뿌리, 1986, p.45.

8) 申采浩,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上), 螢雪出版社, 1979, pp.81~83.

9) 李敎化 編述, 『天道敎創建史』(景仁文化社, 1982), 第二編, p.27.

10) 上揭書, 第三編, p.20.

설할 國祖를 의미한다. 곧, 개국초 우리 민족의 國祖인 天皇에 의해 성립된 고유종교가 있었고, 이를 계승한 것이 東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桓檀古記』 三聖紀全 하편의 기록을 보면, “桓國¹¹⁾의 말에 安巴堅이 庶子부의 桓雄에게 開天立教하고 在世理化 弘益人間하여 만세 자손의 洪範이 되게 하라 하고, 또한 환웅이 비로소 三神으로 設教하였다(桓雄乃以三神設教)”는 기록이 있다¹²⁾. 즉, 우리 나라 개국초 배달국의 초대 桓雄天皇이 開天하여 三神으로 設教(立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開天이니 三神이니 設教니 立教니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開天은 開天節의 開天和 같은 글자이다. 즉, 開자는 “열(개) · 크게 깨달음(개) · 크게 통할(개)”자이다. 天자는 상계 · 하늘 · 우주 · 태양 · 태양계, 사람에 있어서는 聖君 · 아버지 · 남편 · 남성 · 양성,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곧 天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회의문자로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現象과 法理인 天道를 의미한다. 따라서 開天이란 “天道를 크게 깨치다”는 뜻이다. 三神은 司馬遷의 『史記』 封禪書에 의하면 天一 · 地一 · 太一(人一의 강조)을 의미한다¹³⁾. 設教의 設은 “세우다, 만들다”는 뜻이며, 立은 “세우다, 이루다”의 뜻이다. 教는 이 경우 ‘가르칠(교) 자보다도 ‘종교(교) 자로 풀이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환웅천황이 “開天設教”하였다는 것은 “환웅천황이 천도를 크게 깨치어 종교를 세웠다”는 뜻이며, “以三神設教”했다 함은 “天一 · 地一 · 人一의 三神으로 종교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상을 종합해 말하면, 환웅천황이 天道를 크게 깨치어 天一 · 地一 · 人一의 三神으로 종교를 창설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桓檀古記』와 『檀奇古史』에 보면, 桓雄天皇이 經典으로서 天符經 · 三一神誥 · 參佺戒經, 그리고 戒律로서 三倫 · 五戒 · 五倫 · 八條 · 九誓 등의 戒律과 德目を 설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崔濟愚 선생과 崔時亨 선생 그리고 孫秉熙 선생이 桓雄天皇을 先天開闢의 始祖라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환웅천황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누구이며, 언제 開天設教했는가? 『桓檀古記』 三聖紀全下篇 神市歷代記에 의하면, 桓雄天皇은 倍達國을 세운 제1세 天皇으로서 居發桓¹⁴⁾이라고도 하며 “94년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고 120세 까지 살았다. 배달국은 환웅천황이 정한 호로서 처음의 도읍지는 神市였으나 뒤

11) 『환단고기』에 의하면 桓國은 태고시대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나라로서 7세 환인에 의해 무위 자연적으로 통치되던 神敎國家를 지칭한다. 현재와 같은 국가가 아니다.

12)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 金殷洙 譯註, 『桓檀古記』 가나출판사, 1985, pp. 34-35.

13) 司馬遷 撰 『史記』 封禪書. 李成奎 編譯, 『史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516.

14) 거발환(居發桓)이란 천지인(天地人) 일체의 천도를 깨친 이를 일컫는 말이라 한다.

에 靑邱¹⁵⁾로 옮기어 18세를 전하고 역년은 1565년이었다”고 한다¹⁶⁾. 그리고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환검단군(단군왕검)이 開天 1565년 (음력)10월 3일에 이르러 太白山(白頭山) 檀木 밑에서 三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九桓의 추대를 받아 朝鮮國을 세웠다고 했다. 그리고 금년은 단기 4334년이다. 따라서 환웅천황은 先天開闢의 始祖이며, 그가 開天設教 곧 先天開闢한 때는 지금(서기 2001년 현재)부터 5897년 전 10월 3일인 것이다¹⁷⁾.

따라서 오늘날 해마다 거행되는 開天節 行事는 첫째, 환웅천황이 지금으로부터 5897년 전 음력 10월 3일에 이르러 태백산 神市에서 天道를 크게 깨치어 先天開闢한데 대한 기념행사이며, 둘째, 환검단군이 지금으로부터 4333년 전 음력 10월 3일, 태백산 神市 檀木下에서 朝鮮國을 건국한데 대한 기념행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음력 10월 3일의 개천절 행사는 민족혼의 탄생과 국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며 최대 행사인 것이다. 그래서 음력 10월을 上달이라 한다.

이러한 고유종교가 고려시대까지 유지돼 오다가 몽고의 침략과 탄압에 의하여 불교와 혼용된다¹⁸⁾. 또한 근세조선의 朱子學 일변도 정책과 일제시대 식민정책에 의해 고유사상은 근거 없는 迷信 또는 似而非宗教로 취급되어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는 우리 민족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 “三神上帝·三神帝王·三神할머니·三神풀이”니 하는 이름으로 겨우 그 뿌리만이 민족에 남아있을 정도이고, 그 사상이나 계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는 원시적인 巫敎로, 先天開闢의 始祖인 桓雄天皇은 신화적인 존재로,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찬란하였던 민족문화는 근거 없는 것으로, 東方禮義之國이니 君子之國이니 하는 것은 국수주의자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게 되고, 민족문화의 원류는 支那 또는 印度 아니면 시베리아나 西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하잘것 없고, 외국문화만을 받아들인 미개민족으로 자학하게 되는가 하면,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를 부활시키고 이를 계승한 대종교(단군교)·동학(천도교, 수운교)·증산교(증산도, 대순진리회, 태극도, 보천교) 등 자생적 민족종교의 전통적 고유사상도

15) 청구(靑邱)는 만주 요동지방임.

16) 김은수 역, 『桓檀古記』, 서울 : 가나출판사, 1985, p.37.

17) 4333+1565-1=5897년은 환웅천황이 開天하여 오늘에 이른 해를 의미하고, 지금부터 올라 가면 개천한 해는 “5897-1=5896”년 전으로 된다.

18)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람원, 4312(1979), p.108.

이를 부정하여 모두 외래사상을 흡수·종합·재구성하였다고 곡해하게 된다¹⁹⁾.

Ⅲ. 神仙道の 思想

1. 崔致遠鸞郎碑序의 民族史的 意義

그러면 先天開闢의 始祖인 환웅천황에 의하여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천도에 바탕을 둔 신선도가 베풀어졌다면, 그 기본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丹書口訣』에 “天地人을 三才라 하고, 道·佛·儒를 三教라 하니, 三才를 세우면 거기에서 三教가 세워진다”고 하였다²⁰⁾. 곧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에 의해서 道·佛·儒 三教一體의 신선도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崔致遠鸞郎碑序”에 의하면 신선도는 玄妙之道로서 모든 종교의 원천이며, 道·佛·儒 三教一體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 지닌 합리적인 성립종교이다. 최치원난랑비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崔致遠鸞郎碑序 曰 國有玄妙之道 曰 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²¹⁾

위의 원문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이는 종교 창설의 원천으로써 신선도의 사서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도·불·유)3교의 사상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간 즉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

19) 1) 申一澈, “崔水雲의 歷史意識”, 韓國思想硏究會, 『韓國思想叢書』 IV, (崔水雲硏究), 泰光文化社, 1980, p.21.

2) 李炫熙,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靑亞出版社, 1984, p.16.

3) 李乙浩 外, 『한思想和 民族宗教』, 一志社, 1990, p.100 등 제도권 학자들의 저서에는 거의 모두 민족종교가 외래의 道·佛·儒 사상을 수용 종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4)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1992, p.171 및 181.

20) 李鍾殷 譯註, 『海東傳道錄·靑鶴集』, 普成文化社, 1986, p.181.

2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24, 眞興王 37年條

라 사구(공자의 벼슬)의 교지와 같고,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함은 주나라 주사(노자의 벼슬)의 종지와 같으며,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축건태자(정반왕의 태자)의 교화와 같다.

이상이 최치원 난랑비서의 내용이다. 우선 본문에 표현된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면 화랑도·현묘지도·풍류도·신선도는 등식관계이며 實乃包含三教한 종교라는 것이다.

實乃包含三教란 근본적으로 道·佛·儒 三教一體의 사상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즉, 신선도나 화랑도 그리고 풍류도는 모두 동계사상이며 현묘지도로서 모든 종교의 원천이며, 도·불·유 삼교일체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 지닌 종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태고시대부터 도교·불교·유교 삼교일체의 화랑도 내지 신선도라는 고유종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궁에 빠졌던 先天開闢思想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이다. 고유사상이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무속 내지 두레의 일종으로 왜곡되고 있었던 것이다²²⁾. 여기에서 桓雄天皇은 신화적인 가상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 인물로서 東學에서 말하는 先天開闢의始祖이며, 신선도는 미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상과 철학을 지닌 어엿한 成立宗教로서 동학에서 말하는 先天開闢思想이라는 사실이 제1차로 드러난 셈이다.

이어서 三教一體의 의미를 부연 해설하면, 그것은 一物三面적인 體一用三·執一舍三·會三歸一 사상이란 뜻이다. 즉 신선도를 나누면 도·불·유가 되고, 도·불·유를 歸一하면 신선도가 되어 신선도는 도·불·유의 본체가 되고, 도·불·유는 신선도의 쓰임인 지류가 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상을 비교하여 보면, 신선도는 노자의 도교나 석가의 불교 및 공자의 유교 등 이들 종교의 본체가 되고, 이들 종교는 신선도의 쓰임인 지류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선도는 이들 종교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면 古道教(前道教)·古佛敎(前佛敎)·古儒敎(前儒敎)가 되며, 신선도를 설한 桓雄天皇은 古仙(前仙)·古佛(前佛)·古聖(前聖)이 된다. 즉, 桓雄天皇은 신화적인 가상 인물이 아니라 先天開闢의始祖로서 부처님이었고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논증됐다고 할 수 있다²³⁾.

22) 최치원 난랑비서의 국역에 있어서 鸞郎을 사명으로, 設敎를 說敎로, 包含을 包涵으로, 且如를 “또는·그런데”로 곡해 내지 오역한 글이 많다. “鸞郎은 화랑을 봉황의 일종인 난새에 비유한 것이며, 設敎는 종교를 일으키다. 包含은 원래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 且如는 다시 말하면……같다”는 뜻이다.

23) 桓雄의 桓을 파자하면, 桓은 木과 二와 日의 회의문자(會義文字)이다. 木은 東方, 二는 하늘

여기에서 印度를 南天竺이라 하면 倍達國과 古朝鮮은 부처님이 세운 나라로서 北天竺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神仙之國이었으며, 君子之國이었고, 東方禮儀之國이었으며, 須彌世界였고, 인도의 詩聖 타고르의 말대로 아득한 옛날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났던 등불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問題點의 論議

화랑도가 신선도와 동계사상으로서 하나의 합리적 성립종교이며, 태고시대부터 있었다고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37년에 花郎을 처음으로 받들었다는 기록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만약, 이 기록을 믿는다면 그 보다 14년 전 진흥왕 23년 9월에 伽椰가 배반하자 異斯夫와 함께 출정하였던 斯多舍를 花郎이라 하였으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진흥왕 37년이라는 연도문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불·유는 老·釋·孔에 의해서 集大成되었고 창안된 종교인데, 이들 종교보다 신선도나 화랑도가 선행종교라면 어떻게 선대의 사상이 후대의 사상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민족은 철학도 종교도 없는 미개민족같이 자학하여 왔고, 金石之文인 崔致遠鸞郎碑序가 고의적으로 곡해되고 있는가 하면, 선대의 고도한 문화사상도 부정하게 되고, 그에 대한 기록도 僞書로 몰리게 되었다고 본다. 도·불·유 사상은 대자연의 운행원리인 천도에 바탕을 두고 설하여진 사상이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창안될 수 있는 사상도 아니며, 중국이나 인도에만 국한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본 문제는 道·佛·儒 사상이 신선도의 지류로서 대자연의 운행원리인 천도에 의해서 발원되었고 역수입됨을 증명하면 풀리게 된다. 이 문제는 줄져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또는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동양사상의 기원』 또는 불원 출판 예정인 『桓雄天皇의 先天開闢과 韓國固有思想의 誕生』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과 땅, 日은 태양·日光·光明·빛을 의미한다. 곧 桓은 '빛, 밝음, 광명, 동방의 빛, 동방의 하늘나라에서 광명이 비추인다'의 뜻이다. 雄은 '우두머리, 어른, 수컷, 아범(아버지·남편의 비칭)'의 뜻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우리 말로 표현하면, 桓雄은 영명한 군주, 밝으신 어른, 밝아범, 박가범을 의미한다. 곧 환웅은 불교의 대승경(大乘經)에 나오는 박가범(薄伽梵) 부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IV. 神仙道の 實在的 根據

1. 神仙道の 遺物과 遺蹟

태고시대부터 합리적 成立宗教가 있었다면, 天災地變이 극심하여 遺蹟과 遺物이 거의 유실되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디엔가 그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선도의 절터, 佛塔과 佛像, 祭壇과 祠堂, 그밖에 신선사상 내지 삼신사상을 표현하는 상징물 등이 있을 수 있다.

1) 신선도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

成立宗教란 위대한 성인이나 부처님이 일반대중을 위하여 설하신 교육적 기본지침이며, 인생이 나아갈 바와 행할 바를 제시한 교육의 最高指針이다. 그러므로 성립종교에는 반드시 經典이 있게 마련이며, 경전에는 일반적으로 經藏과 律藏이 있고, 경장과 율장을 쉽게 해설한 論藏이 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함축적 의미의 종교문자와 간이한 상용문자가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漢字는 함축적 의미의 종교문자에 속한다면, 梵字와 한글은 서민대중을 위한 상용문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이들 문자는 그 기원을 탐구해보면 모두 신선도의 문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자는 지나족의 문자인양 여기고, 범자는 인도족의 문자로 생각한다. 또한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漢字와 梵字의 由來는 論外로 하고, 고대문자의 有無와 한글의 由來만을 다루기로 한다.

李能和의 『朝鮮道敎史』를 보면, 桓因 眞人이 大王氏에게 始書를 짓게 하고, 終書 1권을 自作하였는데, 그 글이 文朴氏로부터 乙密·永郎·晏留·普德·聖女들에 전하여 졌다고²⁴⁾ 하여 환인시대에 이미 문자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지나의 葛洪이 지은 『抱朴子』 內篇에 “옛적에 黃帝가 紫府先生을 뵈옵고, 三皇內文을 받아 갔다” 하고²⁵⁾, 『太白逸史』 소도경전본훈에 “삼황내문은 神市의

24) 李能和 編 『朝鮮道敎史』 影印本(第二章 朝鮮檀君神話最近於道家說), 中央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7, pp.13-14.

25) 李能和(李鍾殷 譯註), 『朝鮮道敎史』, (第四章, 三, 黃帝東到靑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說), 普成文化社, 1983, pp.44-45. 原文(p.365) : 晉葛洪撰 抱朴子 有黃帝東到靑丘 過風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

鹿圖로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²⁶⁾. 이를 보면 배달국 시대에 鹿圖文이 있었다. 또한 동서에 기록하기를 “神市에 鹿書가 있었고, 紫府에 雨書가 있었으며, 崑崙에 花書가 있었다. 鬪佃文東은 그 남은 흔적이다. 伏羲에 龍書가 있었고, 檀君에 神篆이 있었다. 이러한 글자와 글이 白山·黑水·靑邱 등 九黎의 지역에서 널리 쓰여졌다”고 하였다²⁷⁾. 여기에서 보면, 고대에 신선도의 문자로서 鹿書·雨書·花書·龍書·神篆이 있었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 나라에 문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창제에 동참한 申叔舟의 후손인 18세기의 申景濬은 「훈민정음 운해」에서²⁸⁾, 그리고 申采浩는 “국문의 기원”에서²⁹⁾ 옛 한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集賢殿 학자 정인지의 訓民正音序文과 최만리의 上疏³⁰⁾ 그리고 세종 23년 갑자에 반포한 「世宗實錄」 103권에³¹⁾ 옛 문자 내지 고조선 시대의 문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東國歷代」에는 3세 단제 가락 원년 기해 춘 2월에 납언박사 강보록이 국문정음을 만들어 언문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³²⁾, 「檀君古史」에도 제3세 단군 가락 2년 봄에 박사 乙普勒에게 명하여 國文正음을 정선하였다고 하였다³³⁾. 그런데 「단군세기」 제3세 단군 가락 2년조를 보면 고대 한글을 원형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자 2년(B.C.2181) 時俗이 같지 아니하고 방언이 달랐다. 象形表意의 眞書(漢字)가 있었으나 卜家의 고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100리의 국가에 서는 글자를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三郎 乙普勒에게 명을 내려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니 이를 加臨土라 하며, 그 글은

26) 상계서, p.200. 鹿圖文은 鹿頭文의 오기가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녹두문이라면, 북셈계의 페니키아문자가 마치 사슴뿔 모양같으므로 녹두문이 아닌지 추정해본다.

27) 김은수 역, 전계서, 「한단고기」, p.208.

28) 류철,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기부터 고유한 민족문자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 이형구 역음, 「단군과 단군조선」, 살림터, 1995. p.113에서 재인용.

29) 신재호, 「國文의 起源」, 丹齋申采浩全集刊行委員會 編, 前掲書, (別冊), p.78.

30) 李能和 編, 前掲書, 「朝鮮佛教通史」, 下, 八, 諺文字法, 一, 倣漢字古篆, p.428 (608)에 按 御製訓民正音 鄭麟趾序, 癸亥冬 我殿上 創製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之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이라 하고, 또 崔萬理上疏……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라 하였다.

31) 「世宗實錄」, 百三卷에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借使諺文 自前朝有之”라 했다.

32) 「東國歷代」, 三世檀帝 嘉勒元年 己亥 春 二月 納言博士 姜普勒 撰國文正音 名之音 言文(一名 乙普勒) :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 기린원, 1991, p.55에서 재인용.

33) 大野勃, 前掲書, p.56.

더욱이 한글의 구조와 가림토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모음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자가 서로 똑 같고, 자음인 “ㄱ ㅋ ㆁ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ㅊ ㅋ ㆁ”이 동일하다. 이를 보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단군조선 시대의 국문정음을 고쳐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훈민정음과 신선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신선도는 三神五帝의 原理 곧 天地人 三才之理와 木火土金水의 五行을 그 발생원리로 한다³⁹⁾. 그런데 한글학자 이정호는 훈민정음도 天地人 三才之理와 木火土金水의 五行을 발생원리로 제작되었다고 하였다⁴⁰⁾. 또한 그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글 곧 훈민정음은 신선도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신선도의 문자(神篆)라 할 수 있다. 즉 加臨土를 옛 神篆이라 하면, 한글은 현대 神篆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이 있다는 것은 신선도의 실재를 제1차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2) 桓雄像과 禮佛圖와 塑造神像이 발견되었다.

단군세기 제11세 단군 도해제 조를 보면, 겨울 10월에 대시전을 세웠는데 매우 장엄하였다. 천제 환웅의 遺像을 봉안하였는데 머리 위에는 광체가 뽀뽀뽀하여 마치 큰 해와 같았다. 둥근 빛은 온 우주를 비추고 박달나무 밑 桓花의 위에 앉아 계시니 하나의 살아있는 神이 둥근 원의 가운데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이를 屈發桓이라 한다 하였다⁴²⁾. 이는 곧 환웅상을 만들어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현재에도 환웅상이 어디엔가 있을 수 있으나, 고려를 지배한 몽고의 민족종교 탄압과 근세조선 시대 사대모화정책에 의해 桓雄像이 거의 파괴되어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환웅과 석가는 모두 환골 탈태한 부처로서 그 모습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고, 釋迦像이 印度風이라면, 桓雄像은 옷을 입은 韓國風으로서 어느 보살상으로 곡해되기 쉽다. 그래서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환웅유상이 발견되었다.

199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학술회의에서 나카노 하타노(中野幡能) 교수는 “단군신앙과 일본 고대 종교”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에는 단군이라

39) 안창범,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동양사상의 기원』, 서울 : 국학자료원, 1996, IV. 神仙道の 成立背景 참조.

40) 이정호, “훈민정음해설”, 계간 『동서사상』, 1989, 봄호(창간호), pp.154-161.

41) 여기에서 한글을 현대의 신전(神篆)이라 하면, 가림토는 고대의 신전(神篆) 곧 단군신전(檀君神篆)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신전(神篆)이란 신선도의 글자라는 뜻이다.

42) 金殷洙 譯註, 『桓檀古記』, 서울 : 가나出版社, 1985, p.64.

는 이름이 살아남지 못했으나 백산(白山)이나 환웅(桓雄)이란 이름은 살아남아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노 교수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종교사학과를 졸업하고 평생을 일본 산악신앙 연구에 바쳐 일본문화훈장을 받은 원로 학자이다⁴³.

소에다정청(添田町役場)에서 펴낸 『영언산(英彦山)을 탐구한다』(1985, 添田役場 編)에 보면, 일본 영언산에 모셔 있는 환웅천황이 우리 나라에서 건너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英彦山을 비롯한 일본 북규슈(北九州)의 여러 산에는 白山神이 모셔져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의 산악신앙이란 檀君信仰을 말하는 것으로 白頭山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신앙의 대상은 桓仁·桓雄·桓儉(檀君)의 三神인데, 그 중에서도 환웅은 인간세상을 교화하기 위하여 太白山에 내려온 神으로서 고대 朝鮮을 개창했다 하여 민중의 신앙이 두터웠다. 이 한국의 桓雄信仰이 일본 영언산에 전파되어 藤原桓雄이 되고 일본 桓雄信仰이 되었다. 그 때문에 백산신앙이 따라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⁴⁴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先天開闢의 始



북규슈 후쿠오카현 소에다정의 환웅상

환웅이 검은 수염에 박달나무 이파리로 장식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곳 사람들은 어깨죽지에 늘어진 환웅의 옷을 등(藤) 나무 앞으로 보고 환웅을 후지하라강유(藤原桓雄)라 불러 오고 있다.

43) 박성수, 『단군문화기행』 서원, 2000, p.348.

44) 上掲書, pp.385-386. 英彦山은 행정구역으로는 북규슈 후쿠오카현(福岡縣) 타가와군(田川郡) 소에다초오(添田町)에 있다.

租人 桓雄天皇이 日本에 가서는 白山信仰(山岳信仰)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 대한 중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 압록강 중상류 길림성 집안시 장천지구 제1호 고분 전실에서 고대의 예불도가 발견되었는데, 三佛이 아니라 一佛로서 그 모습과 의복이 印度風이 아니라 韓國風이었고⁴⁵⁾, 1983-85년에 걸쳐 중국 요령성 능원현 우하량 유적지를 발굴조사하였는데, 그 구릉상에서 제사유적과 대형 신전(神殿) 및 소조신상(塑造神像)이 발견되었다. 이를 방사선 측정된 결과 기원전 3500년으로 나왔다⁴⁶⁾. 중국 요령성은 옛날 청구(靑邱)라 불리웠던 곳이며, 청구는 고대의 우리 나라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 요령성에서 발견된 제사유적과 신전 및 소조신상은 신선도의 실재성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선도의 象徴인 金冠이 있다

金冠은 지금까지 신라·고구려·백제 등 삼국과 가야시대의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외부에서 전래된 유품으로 생각해왔다. 금관의 용도에 있어서도 분명치 않아 “당시의 세계관에 따라 死者의 영혼을 위한 껌묻거리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⁴⁷⁾, 장식한 것으로 보아 왕자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 곧 금관을 왕관으로 보는 학설이 있으나, 어느 때 누가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고 사용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⁴⁸⁾.

그러던 차에 1993년 북한 사회과학원은 평양의 단군릉을 발굴하여 단군의 실체를 확인하고⁴⁹⁾,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고 도굴되어 이번의 발굴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그 가운데 매우 주목되는 것으로 금관 앞면의 세움장식과 돌림띠의 조각이 각각 1개씩 나왔다고 발표하였다⁵⁰⁾.

이상의 발굴보고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관을 제작하였고⁵¹⁾, 金

45) 李亨求, 『韓國 古代文化의 起源』, 도서출판 까치, 1991. p.22.

46) 1986년 8월 1일자 『조선일보』 7면.

47) 『브리테니카 세계대백과사전』, 한국브리테니카회사, 1993. 금관.

48) 이병수 편, 『教育世界百科大事典』, 教育圖書, 1988. ‘금관’ 참조.

49) 상계서. p.21.

50) 상계서. pp.65-66. 본서 서두 p.2 참조.

51) 『學園世界大百科事典』, (學園出版公社, 1994. “王冠” 참조)에 의하면 서구에 있어서 금관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이며, 중국에 있어서 금관의 역사는 분명치 않으나 은주(殷周) 시대에 옥인(玉人)이 있었으므로 그 때에 금관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더욱이 인도·태국·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금관이 발견되지 않는다(金秉模, 『금관의 비밀』, 도서출판 푸른역사, 1998. p.144.).

冠이 神仙道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三國史記』 東川王 21년 조에 檀君王儉을 仙人이라⁵²⁾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금관과 신선도는 불가분적인 관계를 지닌다.

첫째, 금관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은 화려하면서도 불변적이며 광채를 발산한다. 그래서 금은 종교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선사상의 불변성과 성스러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금관은 일반적으로 三山寶冠式인데, 신선도는 山岳思想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삼신일체를 발생원리로 하며, 삼신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三山寶冠式은 신선도의 山嶽思想과 三神思想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 나라의 금관은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꽃무늬 鹿角形立飾인데, 신선은 사슴과 불가분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五帝思想에서 五戒 五倫 등 신선도의 戒律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다섯 개의 녹각형입식은 신선도의 五帝思想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나라의 금관에는 連珠무늬 테두리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三足鳥가 투각되어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위쪽에 봉황, 아랫쪽에 두 마리의 龍이 배치되어있다. 이것은 신선도의 현묘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금관은 垂下飾인 경우 수 많은 瓔珞이 달린 금사슬을 좌우에 3줄씩 긴 것을 밖으로 하여 길게 늘어뜨리고, 수 많은 비취와 曲玉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것은 신선도의 眞善美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금관은 신선도와 불가분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선인 단군왕검 때에도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금관은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 자체의 기술로 제작됐음을 의미한다.

둘째, 금관의 제작은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기술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 그 화려하고 요묘함은 신선사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왕검 때에도 금관이 있었다는 것은 단군왕검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신선도가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신선도의 불탑이 있다

『단군세기』를 보면 제16세 단군 尉那帝 무술 28년(B.C.1583) 九桓의 諸汗이

52)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五, 東川王 21年條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寧古塔에 모여 三神上帝께 배향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⁵³⁾, 제20세 단군 固忽帝 병신 36년에 영고탑을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⁴⁾. 이를 보면 단군조선 시대에 불탑이 있었다. 또한 「국어대사전」을 보면 영고탑을 寧安이라 하고, 영안은 滿洲 吉林省에 있는 역사적 古城이라 하였다⁵⁵⁾. 이를 보면 신선도의 불탑이 만주 길림성 영안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寧古塔이란 뜻도 寧安의 옛 탑이란 뜻이다. 이를 생각하면 신선도의 불탑이 만주 길림성 영안에 있었던 것이다⁵⁶⁾.

또한 「삼국유사」 요동성옥왕탑편을 보면 성왕(동명성왕)이 요동을 순행하다 보니 三重土塔이 있었다 하고, 성왕이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생겨 七重木塔을 세웠는데, 그후에 佛法이 들어왔다고 하였다⁵⁷⁾. 즉 석가불교 전래 이전 단군시대부터 우리 나라에는 불탑이 있었다는 것이다.

5) 익산의 폐미륵사는 신선도의 가람이었다

全羅北道 益山市 金馬面 箕陽里 彌勒山 一名 龍華山 남쪽 기슭에 약 2만 3천여 평에 달하는 광대한 넓이의 미륵사지가 있다. 미륵사지는 史蹟 150호로서 이를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결과 三院三塔 竝置式의 가람배치로서 고대 동양의 가람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는 특수한 형식의 거대한 가람이었음이 밝혀졌다⁵⁸⁾.

이에 대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北道 益山郡 佛宇조를 보면 전북 익산 금마의 (폐)미륵사는 後馬韓의 武康王이 창건한 가람이라 하였다⁵⁹⁾. 그때는 B.C 2세기 초로서 석가불교가 우리 나라에 전래되기 전이다. 또한 三院三塔은 신선도의 삼신사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익산의 폐미륵사는 신선도의 실재를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가 태고시대부터 우리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馬韓 54국 중에 伯濟(文獻通古에는 佰濟)가 있었다는⁶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후마한의 무강왕과 비슷한 왕호를 가진 백

53) 김은수 역, 전게서, 「환단고기」, (단군세기), p.68.

54) 상계서(단군세기), p.70.

55) 이희승, 전게서, 「국어대사전」, '영고탑 및 영안' 참조.

56) 이에 대해 반대론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한다.

57)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遼東城育王塔.

58) 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1), 文化財管理局, 1989, p.21.

59) 民族文化推進會,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2), 제33권, 全羅北道 益山郡 佛宇, p.423.

60) 國史編纂委員會 編, 「中國正史朝鮮傳 譯註一」,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條), 大韓民國文教部

제(삼국의 하나)의 제24세 武寧王이 폐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⁶⁰, 제29세 武王이 창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록도 있다.⁶² 이와 같이 본의는 아니라 해도 민족사가 왜곡되고 후대로 끌어 내려지고 있다.

6) 神仙道の 祭天處와 祠堂이 있다

신선도의 삼성 또는 삼신을 모셨던 유적으로 현재도 한밤산의 보본단, 묘향산의 단군굴, 평양의 단군묘, 서울의 社稷壇과 인왕산의 國師堂, 강화도 마니산의 제천단(참성단)과 정족산의 三郎城, 황해도 구월산의 三聖祠와 御天臺, 금강산의 천제단, 태백산의 천황단과 단군성전, 서울 인왕산 활터인 黃鶴亭, 조선호텔 앞의 제천단인 圓丘壇, 전북 진안 솟도산인 馬耳山, 전남 해남읍의 天真殿, 경북 김천 직지사를 비롯해서 사찰의 한쪽에 모여있는 삼성각, 울진군 북면 나곡리의 성황당과 신목, 제주도 북제주군 송당리 만장굴 본향당 등이 있다.⁶³

2. 神仙道 遺蹟의 佛敎化

불교의 기원을 연구해보면, 신선도와 불교는 근본적으로 같은 종교이다. 그래서 고려 중엽에 이르러 仙佛合作의 향도단체 같은 것이 생기고, 고려 고종(1214-1259) 때에 이르러서는 원나라가 고려를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원왕 흘필열이 불교만을 숭상하고 단군을 받드는 교파를 탄압함으로써⁶⁴ 신선도는 불교와 혼용하게 된다.

1) 신선도의 절터에 불교의 사찰을 지었다.

「삼국유사」 아도기라 편을 보면, 신라의 古都 鷄林 곧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에 前佛 시절의 일곱 절터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⁶⁵ 전불교란 고불교로서 신선도를 지칭한다.⁶⁶

國史編纂委員會, 1987, p.191, 282.

61) 李丙彥,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1, p.550.

62)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63) 고준환, 「하나되는 한국사」, 범우사, 1992, pp.99-100.

64) 안호상, 전게서,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p.108.

65)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 阿道基羅.

66)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彌勒仙花 未尸郎 眞茲師 篇에 “至今國人稱神仙曰彌勒仙花(지금에 이르기까지 神仙을 彌勒이라 仙人이라 花郎이라 일었다”라 하였고, 석가모니를 大

- ① 金橋 동쪽 天鏡林(지금의 興輪寺址)
- ② 三川岐(지금의 永興寺)
- ③ 龍宮 남쪽(지금의 黃龍寺)
- ④ 龍宮 북쪽(지금의 芬皇寺)
- ⑤ 沙川尾(지금의 靈妙寺)
- ⑥ 神遊林(지금의 天王寺)
- ⑦ 嬭請田(지금의 曇嚴寺)

이상 외에도 경기도 양주군 천보산 회암사의 터를 西天竺의 指空禪師는 上世七佛 시절의 큰 절터라고 하였다⁶⁷⁾.

이상과 같이 先天開闢思想인 신선도의 절터가 우리 나라에 있고, 거기에 석가불교의 사찰이 들어서 있다.

2) 神仙道の 大雄殿이 佛刹本堂이 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찰본당에 비로자나불을 모셨으면 비로전, 미륵불을 모셨으면 미륵전이라 한다. 그와 같이 석가불을 모셨으면 석가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찰본당의 명칭을 대부분 대웅전이라 하였다. 대웅이란 불타의 十佛號⁶⁸⁾에도 없는 명호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태백일사」를 보면 “대웅전이란 僧徒들이 고사를 답습하여 잉칭한 것이며, 본래는 승가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⁶⁹⁾. 또한, “환웅을 대웅이라”고도 한다⁷⁰⁾. 이를 보면 대웅전은 곧 환웅전으로서 신선도의 본당 명칭이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大雄殿이란 간판의 존재는 석가불교 전래 이전 태고시대부터 우리 나라에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가 있었고, 신선도와 불교의 혼용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神仙道の 塔이 佛教寺刹 경내에 있다

인도의 불탑은 스투파(Stūpa)이다. 스투파는 屍身을 안치하기 위해 흙과 돌로

仙이라 한다. 그리고 불교의 기원을 연구해보면 신선도와 불교는 근본적으로 동계사상이다 (출처『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참조). 그러므로 神仙道는 곧 前佛敎인 것이다.

67)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 기린원, 1991, p.259.

68) 十佛號는 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다.

69) 김은수 역, 전게서,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 p.158.

70) 임승국 역, 『환단고기』, 정신세계사, 1986, p.156.

쌓아올린 覆鉢型의 墓所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사찰 경내에 수투파를 세우지 않고, 한국식 석탑이 세워져 있다. 석탑은 전형적인 한옥처럼 조성됐는데, 3층·5층·7층·9층으로서 신선도의 三神·五帝·七星·九夷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불탑이 사찰에 있다는 것은 신선도가 실재했었고, 신선도와 불교가 혼용됐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4) 神仙道の 梵鐘이 佛敎寺刹 경내에 있다

한국의 범종에는 종을 매달기 위해 받줄을 연결하는 龍鈕, 소리대통인 音管, 三段三列의 乳廓과 乳頭, 신선의 飛天像이 있다. 이것은 모두 신선사상과 삼신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아함경』에 의하면 고대의 인도에는 사람을 불러모으기 위해 나무로 만든 撻稚가 있었을 뿐이고,⁷¹⁾ 범종이 있다거나 있었다는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 사용하는 종을 보아도 그것은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으로서 인도에는 범종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범종은 신선도의 실재를 증명하고, 신선도와 불교의 혼용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寺刹樣式이 印度風이 아니라 韓國風이다

예컨대, 기독교는 서구에서 전래되었고 서구종교이므로 그 교당건물 축조양식과 부속사물이 모두 서구적이다. 그와 같이 불교도 인도에서 전래된 인도 종교라면 사찰건물 축조양식과 부속사물이 印度風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찰건물 축조양식과 天王門·一柱門·解脫門(不二門) 등 세 개의 관문과 法身佛·報身佛·應身佛 등 세 개의 부처와 기타 丹青 등이 모두 印度風이 아니라 순수한 韓國風이다.

6) 神仙道の 八仙이 半仙 半佛로 擬定되었다

鄭知常의 『八聖文集』에 의하면 八仙이 半仙·半佛로 의정되었다⁷²⁾.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護國白頭嶽太白仙人 … 文殊師利菩薩
- ② 龍圍嶽六通尊者 … 釋迦佛

71) 학원출판공사 사진면찬부, 전계사전, “스투파” 참조.

72) 한국불교사전 편찬위원회, 『불교사전』, 명문당, 1993(불기2537), ‘건치(撻稚)’ 참조.

73) 金得根, 『韓國宗敎史』, 白岩社, 1978, pp.67-68.

- ③ 月城天仙 … 大辨天神
- ④ 驅麗平壤仙人 … 燃燈佛
- ⑤ 驅麗木覓仙人 … 毘婆尸佛
- ⑥ 松嶽震主居士 … 金剛索菩薩
- ⑦ 甌城嶽神人 … 勒又天王
- ⑧ 頭岳天女 … 不動優婆夷

라고 하여 국내 주산 영봉의 신선을 불이나 보살로 擬定(의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한국 불교는 토속신앙 중에서 七星閣·山神閣·獨聖閣만을 흡수한 것인양 말하나, 신선도의 모든 것이 불교적으로 운색됐다고 할 수 있다. 곧 현재 불교 명의를 사찰 자체가 원래 신선도의 사찰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사찰의 존재는 신선도의 실재를 증명하는 살아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V. 史學界의 上古史 否定論 克服

1. 實證史學界의 上古史 否定論 批判

실증사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상고사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신선도는 부정된다. 이 학설은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서구문화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곧 서구사회는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청동기 시대 이전에는 국가로서 성립되지 않았었고, 합리적 종교도 없었다. 그러한 문화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 오늘날 실증사학계의 상고사에 대한 학설이다. 그러므로 이 학설의 주장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청동기 사용은 기원전 10세기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으므로 桓國史는 물론 倍達國史와 古朝鮮史 등 우리 민족의 태고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2500년 이전, 더욱이 고조선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의 청동기들과 금동제품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예컨대, “기원전 2500년경에 해당하는 상원군 룡곡리 5호 고인돌 무덤에서는 비파형 창끝이, 4호 고인돌 무덤에서는 청동단추가 나왔으

74) 趙仁成의 “桓檀古記에 대한 몇 가지 의문”, 단군학회 1999년도 전반기 학술회의, 『桓檀古記의 사료적 검토』 단군학회, 1999, 5, p.33.

며, 강동군 순창리 글바위 5호 무덤에서는 금동귀걸이가 발굴되었다⁷⁵⁾.” 또한 고조선의 비파형 단검과 좁은 낫단검의 시원년대를 밝히기 위해 그 유적지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덕천시 남양유적의 집자리에서 나온 질그릇을 시료로 하여 핵분열 흔적법으로 절대연대를 측정 한 결과, 남양 16호 집자리는 지금으로부터 5,769±788년 전이고, 4호 집자리는 5,724±751년 전, 10호 집자리는 5,866±816년 전, 11호 집자리는 5,793±772년 전이다. 이 년대 값은 단군조선 이전 시기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당시 주민들이 청동기를 만들어 썼다는 것을 실증한다⁷⁶⁾. 따라서 실증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태고사는 부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대한 서구적인 학설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의 상고사와 신선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⁷⁷⁾.

그러나 어떤 학자이든 학문에 심취하게 되면 마치 신앙같이 쉬이 버릴 수 없다. 곧 서구학설을 파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서구학설을 근본적으로 몇 가지 비판한다.

1) 실증사학의 기반이 되는 서양문화는 문화의 원형(pattern)에 있어서 우리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양문화는 헬레니즘(Hellenism : 그리스 중심의 사상) 문화와 헤브라이즘(Hebraism : 유태교와 기독교 중심의 사상)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두 문화의 공통점은 유목문화이며, 자연정복문화이다. 우리문화에도 불교·유교·도교에 따라 다소 다르나 공통점은 농경문화이며 자연조화문화이다. 이와 같이 서양문화와 우리문화는 그 발생배경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한, 서양문화는 그 발생연원을 연구해 보면, 인간의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우리문화의 발생은 서양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양의 최대 고전인 『주역(周易)』 풍지관(風地觀)에 “하늘의 신비한 이치를 보니 봄·여름·가을·겨울의 돌아감이 어김없는지라, 이에 성인이

75) 이형구 역음. 『단군과 단군조선』 살림터, 1995, pp. 198-199.

76) 이형구 역음. 상계서, pp.153-154.

77) 북한의 발굴보고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청동기 사용은 서구보다 약 1500년 내지 2000년 이 빠르고,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들어 어떤 학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대를 부정한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청동기 사용이 기원전 3000년이며, 만주 요령에서 발굴된 청동기가 기원 전 3500년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발굴보고를 무조건 부정함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신비한 이치(天道)로서 종교를 세우니 천하가 잘 따르더라”고 한 바와 같이 우리문화는 우주의 운행원리인 三神五帝를 발생원리로 성립되었다. 三神은 天·地·人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五帝는 木火土金水의 五行을 종교적으로 파악한 표현이다⁷⁸⁾. 또한 서양문화의 우주관은 창조론으로서 자연질서를 인간 위에 천신이 있고, 인간 밑에 동식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서양문화는 天地人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관계로 본다. 이에 반해, 우리문화의 우주관은 순환론으로서 天地人의 관계를 수평적 일체관계로 본다. 이와 같이 우리문화와 서양문화는 발생학적 배경과 발생원리 그리고 우주관 등 문화의 원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문화의 원형이 다른 서구학을 우리문화에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첫째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2) 실증 사학계의 상고사에 대한 학설은 후진사회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불서(佛書)에 의하면 천지의 중앙에서 역대 부처님이 모두 탄생하였다⁷⁹⁾. 이를 풀어 말하면, 지구의 중앙에서 성인이 탄생하였고, 문화가 먼저 발생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구의 중앙 곧 5대양 6대주의 중앙은 우리 나라의 백두산이다⁸⁰⁾. 그러므로 세계문화의 최초 발상지는 우리 나라의 백두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서양보다 먼저 개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 서구사회가 유년기였다면, 우리사회는 청년기였다는 것이다. 곧 고대에 있어서 서구사회는 우리 나라보다 후진사회였다는 것이다. 현대종교를 예로 들면, 서구종교인 기독교의 출현은 지금부터 2천년 전후인데, 동양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출현은 2천 5백년 이전이다. 이를 생각하면, 오늘날 실증 사학계의 상고사에 대한 학설은 분명히 후진사회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따라서 그러한 학설을 선진사회였던 우리나라에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둘째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3) 실증 사학계의 상고사에 대한 학설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증 사학계의 상고사 학설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곧 동양사회와 남방사회를 무시하고 서구사회만을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그러므로 실증 사학계의 상고사 학설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학설이다.

78) 줄저,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신선도의 발생원리 참조.

79) 『佛敎大藏經』, (第七十四册, 史傳部一, 釋迦氏譜: 此伽羅羅城 三千日月天地之中央也, 往古佛興皆出於此.

80) 세계일보, 1992. 2. 22자, 2면. 說往說來.

4) 일반적으로 통설은 절대적 불변적 진리가 아니다.

예컨대, 고대에는 天動說이 통설이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였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450년 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1473-1543)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1564-1642)에 의해 천동설이 파기되고, 지금은 地動說이 통설이다. 이를 생각하면 통설은 절대적 불변적 진리가 아니라 가변적이며 상황적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상고사에 대한 실증 사학계의 학설은 가변적 상황적이며, 보편성과 객관성을 상실했고, 더욱이 문화적 원형이 다른 후진사회를 기준으로 성립된 학설이다. 그러한 학설을 선진사회였던 우리 민족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곧 실증사학계의 상고사 학설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 성립된 학설로서 그 속에 서구중심적 서구우월의식이 깔려있는 서구제일주의 학설이다. 이제야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2. 桓檀古記 僞書論 批判

본 연구에는 「환단고기」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사학계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환단고기」의 내용을 인정치 않고 위서로 취급한다. 이제 그 모순과 부당성에 대해 간단히 비판한다.

첫째, 실증사학계의 상고사에 대한 학설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 이전, 곧 지금부터 3~4천년 전, 국가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의하면 근 만년 전에 중앙 아시아의 天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여리에 달하는 거대한 桓國이 있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데 대한 설명이다.

태고시대의 국가는 지금과 같이 주권·국민·영토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神政一致의 국가였다. 신정일치란 무위자연주의 정치로서 神敎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며, 정치의 영역이 신교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곧 환국의 영토가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여리라 함은 군사적 정치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교의 보급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일대와 유럽에 까지 신교(신선도)의 유향·유속인 샴머니즘 현상이 있고, 지적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이유로 「환단고기」를 부정함은 신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오행라 할 수 있다.

둘째, 「환단고기」에 天符經·三一神誥·參佞戒經 등의 經典과 五訓·五事·

五倫·五戒·三倫·八條·九誓 등의 戒律과 敬天祭인 蘇塗祭天儀式이 나온다. 즉 우리 민족 사회에는 태고시대에 이미 합리적 성립종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어느 국수주의자의 僞作이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을 연구해 보면, 지금까지 신화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환웅천황에 의해 선천사상인 신선도가 설해졌었고, 신선도는 경전·사상·계율·의식·발생원리·발생배경·발생계기 등 종교적 체계를 모두 갖춘 합리적 성립종교였다. 곧 우리 민족 사회에는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선천시대부터 先天開闢思想인 합리적 固有宗教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東方禮義之國, 君子之國, 神仙之國, 隱子之國, 東方의 등불 등 여러 가지로 불렀던 것이다. 그에 대한 유적과 유물 등 실재적 근거도 있었다. 그러므로 태고시대부터 우리 민족 사회에 先天開闢思想인 固有宗教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기술되었다는 이유로 『환단고기』를 부정함은 연구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 할 수 있다.

셋째, 『환단고기』 한국본기를 보면 상하에 차등이 없으며(上下無等), 남녀의 권한이 평등하고(男女平權), 단군세기를 보면 州와 縣을 나누어 정하고, 직책의 한계를 정하였으며, 관리는 권력을 겸하는 일이 없고, 정치는 법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등 민주주의적인 표현이 있다. 그밖에도 『환단고기』 여러 곳에 너무나 이색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내용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도교·불교·유교 등 동양사상은 물론 삼권분립·인권존중·인간평등 등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상고시대 우리 나라였다.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 사상이 서구사회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너무나 상식 밖의 문제이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필자의 저술을 보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환단고기』에 道·佛·儒적인 사상과 민주주의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마련이며, 이를 이유로 『환단고기』를 불신함은 제 민족의 사상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단고기』에 寧古塔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아붙이는 학자들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다.

寧古塔이란 그 뜻으로 말하면 寧安의 옛 塔이란 뜻이다. 영안은 만주 길림성 동남부에 있는 지명이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기록된 영고탑의 유래를 보면, 영고탑은 단군조선 시대부터 존재하여 거기에서 희의를 하고, 환인·환웅·치우·단군왕검을 배향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탑을 수축했다는 기

록도 있다⁸¹⁾. 이를 생각하면 영고탑은 신선도의 불탑으로서 옛날 그 도량에 신선도의 대 精舍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안을 역사적 古城이라”⁸²⁾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태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사회에 선천개벽사상인 신선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이를 깨닫지 못한 일부 학자들은 영고탑을 근거로 들면서 『환단고기』의 내용을 僞作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를 보면, 『滿洲源流考』를 근거로 들면서 영고탑은 중국 淸나라의 조상 여섯 형제가 이곳 언덕에 자리잡고 산 데서 생긴 지명이란 것이다. 곧 영고탑은 청나라 때에 생긴 지명으로서 淸나라 이전의 단군조선 시대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청나라 건국 이후에 조작된 위작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의 寧古塔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만주어로 여섯은 寧姑라 하고, 자리는 特으로서 寧古塔이 淸나라의 시조와 관련되고 있다는 학설은 와전된 것이며, 舊說로서 지명이 아니라 했다⁸³⁾. 곧 『만주원류고』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영고탑이란 글자의 뜻으로 볼 때도 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고탑에 대한 기록을 이유로 『환단고기』의 내용을 부정함은 연구 부족에서 비롯된 과오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환단고기』는 어느 누구의 위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태고시대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문화와 사상을 밝혀주는 금석지문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와 표준연구원 천문대의 라대일 박사는 『환단고기』와 『단기고사』에 나타난 당시의 천문현상을 천문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2백 50년에 한번 관측되는 五星結集이나 日蝕·潮水干滿의 차이 등 기록이 96% 내지 99,3%로 정확하다며 단군조선이 한낱 신화가 아니라 실재하였음이 증명된다”고 결론을 지었다⁸⁴⁾. 이에 대해 정신문화연구원의 박성수 교수는 “기존 학계의 그릇된 통념을 깨는 획기적인 연구이다. 이들 사서를 연구하여 보지도 않고 백안시하여 온 학계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환단고기』의 기록을 함부로 부정함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81) 『환단고기』 단군세기, 16세 단군 나올, 20세 단군 고희조 참조.

82)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79(제29판), 영안(寧安).

83) 『中國古今地名大辭典』 商務印書館, 中華民國二十年, p.1087. 寧古塔: 舊說, 滿洲最初之祖, 弟兄六人, 坐於阜, 故名, 滿語呼六爲寧姑, 坐爲特, 故曰寧姑特, 一譌而曰寧古台, 再譌而曰寧古塔, ……與吉林之寧古塔, 非一地也.

84) 세계일보, 전자월드, 1995. 6. 14, 13면.

VI. 結 論

본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까지 신화적 가상 인물로 취급돼왔던 배달국의 초대 환웅천황에 의해 합리적 고유종교인 신선도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곧 先天開闢 시대 開闢의 始祖인 桓雄天皇에 의해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실재적 근거도 제시했고, 그 유물과 유적이 주로 석가불교의 유적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신선도의 실재적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桓雄像인데, 國內에 있는 桓雄像을 제시하지 못하고, 日本에 있는 桓雄像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桓雄像은 고려를 지배한 元나라 몽고의 민족종교 탄압과 근세 조선의 事大慕華政策에 의해 거의 파괴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웅상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환웅과 석가는 모두 부처로서 換骨奪胎하여 원만구족한 像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桓雄像과 釋迦像은 서로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釋迦像이 인도 옷을 입은 印度風이라면, 桓雄像은 韓服을 입은 韓國風이라 예상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없다 하더라도 중국·만주·몽고·연해주·일본 등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본 연구가 널리 알려질 경우, 언제인가 桓雄遺像이 다시 발견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先天開闢思想인 神仙道가 사라진 이후 약 800년만에 처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내용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관련 학자들에게도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일 것이다. 의문도 많고 따져야 할 내용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여러 선생님들은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질정과 증거보완에 협조 있기를 부탁한다.